제17편 - 제3신앙촌시대〈제4부〉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65회)

제17편
제3신앙촌 시대(제4부)
一. 완성자 구세주 출현
二. 종교(宗敎)를 개종(改宗)함
三. 결혼을 금지시키고 부부를 갈라서게 함

二. 종교(宗敎)를 개종(改宗)함

1) 종교명칭변경(宗敎名稱變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영모님은 예수를 업고 쇼를 해오신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쇼를 해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쇼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81.12.28.축복일)"

위와 같은 영모님의 말씀을 들어보아도 그분은 많은 쇼를 하시면서 당신의 실체를 숨겨오셨던 것이다. 그래서 쇼를 하는 동안에는 전도관의 공식명칭은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韓國예수敎傳道館復興協會)이었지만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라고 선포한 후 예수를 업고 쇼를 하던 것은 이제는 끝맺음을 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그래서 한국예수교를 한국천부교(韓國天父敎)로 종교명칭을 바꾸신 것이다.

1980년 11월에 "한국예수교"에서 "한국천부교"로 종교정관(宗敎定款) 변경신청을 문공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문공부에서는 1980년 12월 29일자로 종교정관 변경신청을 정중하게 반송(返送)조치를 하여 왔다. "교단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법인의 목적수행상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교단명칭의 변경에 따른 법인명칭변경은 이를 허가할 수 없음으로 본 신청서를 반송하니 양지바람"이라고 하여 반송해온 것이다. 이후 신앙촌에서는 몇 년 후에 겨우 종교명칭변경 및 개종정관 변경신청을 문공부를 통하여 허락받게 되었다.

어떻든 한국예수교에서 한국천부교로 개종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종교재산이 예수교라는 명칭으로 형성된 재산이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고 한국천부교로 개종한 이상 예수교로 형성된 재산은 천부교재산으로 자동으로 옮겨질 수가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무리들이 생겼다. 그래서 김모 목사는 전도관 출신들 몇 명과 합세하여서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라는 사무실을 개설했다. 그리고는 문공부에는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는 이곳으로 옮겨서 업무를 본다고 공문을 띄웠다. 그리고 한국천부교는 한국예수교단에서 변절하여 이탈한 종단이므로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 명의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천부교에서는 일체 관여할 수 없고 본재산은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에만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하였다.

이후 문공부의 공문은 한동안 신앙촌으로 가지 않고 가짜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로 공문이 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전도관 재산에 대해서는 정식 소송이 걸려서 약 7년여 동안 소송을 하여 서로 대항을 하였었다.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동안 어떤 때는 신앙촌 재산이 동결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긴장할 정도로 팽팽한 대결을 벌였었다. 그러나 대법원에 가서 최종판결에 의해서 신앙촌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다. 그 내용인즉 "종교가 개종이 되어 정관이 변경되었다고 하나 예수교에서 박태선이 종교재산을 형성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고 또 동

전도관 명칭이 천부교회로 바뀐 후 오늘날의 천부교회

박태선에 의해서 한국천부교로 개종하였음이 사실이기 때문에 본건의 종교재단은 박태선 종단의 소유라고 판결하는 데 아무 하자가 없다"라고 판결하였다. 이렇게 하여 신앙촌그룹 재산은 천부교로 개종된 상태에서도 안전하게 보존되게 된 것이다.

이후부터 한국예수교는 한국천부교로 공식 명칭이 바뀌어 한국천부교로 불려지게 된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첨언해두고 싶은 말은 영모님이 예수교에서 천부교로 개종하실 때 한국천주교(天主)란 명칭에 매우 애착을 가지고 계셨다. 이 천주(天主)란 명칭이 가장 적합하고 이 이상 좋은 명칭이 없는데 아쉽게도 "카톨릭'에서 먼저 사용하고 있다고 매우 아쉬워하셨다.

2) 전도관(傳道館) 명칭을 교회(敎會) 명칭으로 변경함

박태선 영모님의 행적은 당시로서는 참으로 의문투성이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단 명칭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큰 의문투성이었다.

이미 설명을 한 것같이 영모님은 승리제단(勝利祭壇)이라는 처음 들어보는 명칭을 발표하신 바 있다. 그때 영모님은 이 승리제단은 100만명이 들어가는 제단을 지을 것인데 이 제단은 둥굴게 지을 것이고, 제단 내부는 단상이 중앙에 위치하여 그 단은 빙글빙글 돌아가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제단 옥상에는 방송 송출 안테나가 있어 설교하는 내용이 전세계에 방송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가 돌아오게 된다고도 하였다. 그러시면서 "승리제단 지을 부지는 너희들이 사라. 제단은 얼마가 들든지 내가 짓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승리제단 세울 부지 마련을 위하여 헌금을 몇차례씩 하였고, 승리제단 부지를 샀는데 그 장소가 지금 서초동 국립도서관 자리다. 승리제단 부지라고 산 곳이 국가의 수용령에 의하여 국가소유로 수용당하고 말았다.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울 완성의 제단이라면 이와 같이 국가수용령에 의해서 무산될 리 만무한 것인데 국가 소유로 되고 말았던 것이다.

어떻든 영모님은 승리제단을 곧 지을 것처럼 대대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나 지을 생각은 꿈에도 안 하시는 것 같았다.

그런 속에서 영모님은 또 하나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일을 하시는 것이다. 전국의 전도관 명칭을 엉뚱하게도 교회라는 명칭으로 일제히 바꾸신 것이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다. 영모님은 교회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고 그토록 말씀을 하셨는데 돌연 전도관명칭을 구원이 없다고 강하게 치시던 교회란 명칭으로 바꾸신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었다. 전도관 명칭을 바꾸셔야 할 이유가 있었다면 이미 자랑하시면서 발표하신 승리제단이란 명칭으로 바꾸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 아닌가?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영모님은 전국의 전도관 명칭을 다 구원얻을 수 없는 대명사처럼 되어있는 교회란 명칭으로 바꾸신 것이다.

의문이 많은 내용이었지만 감히 영모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론(異論)을 제기할 엄두도 못내거니와 설사 이유를 제기해도 일단 영모님이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번복이 된 예는 한번도 없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결론적인 말을 해보아야 하겠다. 이미 앞에서 다 밝혔기 때문에 독자 여러분들은 이미 머리 속으로 판단을 다 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즉 영모님은 구세주 출현시키시는 사명으로 오신 분이라고 누누이 여러 경서의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하였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의 내용은 영모님의 그러한 사명이 다 끝나고 있음도 느껴지는 부분에까지 와 있다.

영모님은 마치 매미가 탈피(脫皮)하여 허물을 벗듯이, 매미가 벗은 허물은 매미모양을 그대로 갖추고 있으나 실은 껍데기만 남은 것이다. 영모님의 역사도 그와 같다. 구세주 출현이 성공을 거둔 이상 영모님과 전도관은 허물벗은 매미의 껍질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 알맹이인 승리제단의 명칭은 새로 태어나신 구세주에게로 가야 되는 것이고 전도관은 매미의 허물벗은 껍데기에 불과하니 아무 생명이 없는 것이 된다. 그러니 이제는 전도관은 아무 생명도 없는 매미껍질과같으니 구원같은 문제는 전도관에서는 찾지못한다는 뜻으로 구원이 없는 대명사로 만들어 놓은 교회란 명칭으로 바꾸신 것이다.

이와 같은 엄청난 하늘의 천기(天機)가 무량대수 마귀가 잔뜩 들어가 있는 전도관사람들이 알 리 만무한 것이었다. 엄청난 하늘의 이유로 영모님은 승리제단의 명칭은 감추어 놓으시고 구원이 없는 대명사인 교회란 명칭으로 전도관명칭을 바꾸시게 된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격암유록 新 해설
제58회

말세에는 정도령의 십승대도에 머물러야 목숨을 보전하리라

隱祕歌(七) 은비가

殺我者誰 女人戴禾 살아자수 여인대화
人不知 兵在其中 인부지 병재기중
殺我者誰 雨下橫山 살아자수 우하횡산
天不知 裏在其中 천부지 리재기중
殺我者誰 小頭無足 살아자수 소두무족
鬼不知 化在其中 귀부지 화재기중
話我者誰 十八加公 화아자수 십팔가공
宋下止深谷 송하지심곡
話我者誰 豕上加冠 화아자수 시상가관
哥下止 樑底 가하지 량저
話我者誰 三人一夕 수아자수 삼인일석
都下止 天坡 도하지 천파
虎性在山 如松之盛 호성재산 여송지성
見人猖獗 見松卽止 견인창궐 견송즉지
狗性在家 家給千兵 구성재가 가급천병
見雪猖獗 見家卽止 견설창궐 견가즉지
牛性在野 奄宅曲阜 우성재야 엄택곡부
見鬼猖獗 見野卽止 견귀창궐 견야즉지
利在宋宋 畵虎顧名 이재송송 화호고명
物名卽犢音卽松下止 물명즉독음즉송하지
利在哥哥 畵狗顧簷 이재가가 화구고첨
物名卽犬音卽家下止 물명즉견음즉가하지
利在全全 畵牛顧溪 이재전전 화우고계
物名卽牝 音卽道下止 물명즉빈음즉도하지

임진왜란 때에 나를 죽이는 자가 누구인가? 여인(女人)이 벼(禾화)를 머리에 이고(戴대)있느니라. 이는 왜(倭)자의 파자이다. 이는 사람(人災인재)인 것을 모르나니 병란이 그 가운데 있느니라. 병자호란 때에 나를 죽이는 자가 누구인가? 비 우(雨)자 아래(下하)에 뫼 산(山)자가 가로(橫횡)로 놓음이라. 이는 눈 설(雪)자의 파자이다. 이는 천재(天災)임을 모르나니 하늘의 재앙이 눈 속에 있느니라. 마지막 말세에 나를 죽이는 자가 누구인가? 작은 머리에 발이 없는 소두무족(小頭無足)인데 귀재(鬼災) 즉 귀신으로 인한 재앙임을 모르나니 그 속에 조화(造化)가 있느니라. 임진왜란 때에 나를 살리는 자는 소나무 송(松=十八加公십팔가공)이니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소나무(松=宋송 이두식으로 음만 빌림) 아래에 머무르라 고 했느니라. 병자호란 때에 나를 살리는 자는 누구인가? 집(가家=豕上加冠시상가관)이니 집 아래에 머무르라(가하지哥下止=家下止)고 했는데 대들보 밑이니라. 마지막 말세에 나를 살리는 자는 누구인가? 닦을 수(修=三人一夕삼인일석)자이니 하늘고개 즉 황극과 무극(無極)의 궁궁을을 십승대도(十勝大道)에 머물러야 하느니라.

호랑이의 성질은 소나무가 무성한 곳에 있는데 사람을 보면 날뛰며 소나무를 보면 즉시 멈추느니라. 호랑이는 임진왜란(壬辰倭亂)때의 왜병(倭兵)을 말하며 명나라 이여송(李如松)의 군사가 우리를 구해 준다는 뜻이다. 개의 성질은 사람이 사는 집에 있는 것인데 병자호란(丙子胡亂)때 집에 가만히 있으면 천(千)명의 군사를 공급받는 것과 같으니 개는 눈을 보면 미쳐 날뛰나 집을 보면 즉시 멈추느니라. 겨울이 되어 눈이 펑펑 내릴 때는 산으로 피란가지 말고 집이 보이면 즉시 집 안에 머물러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소의 성질은 들(들에서 풀을 뜯어 먹고 밭을 간다.)에 있으니 들은 엄택곡부(奄宅曲阜=우성인이 계신 곳)와 같으니라. 소는 귀신을 보면 날뛰고 들(성인 즉 정도령이 계신 곳)을 보면 즉시 멈추느니라.

엄택곡부(奄宅曲阜)는 원래 공자가 성인으로 받들던 주나라 주공 단(주나라 문왕의 셋째아들)이 거하던 곳으로 성인이 계신 곳을 말한다. 또한 공자의 고향이기도 하다. 즉 나를 죽이는 귀신이 날뛸 때는 정도령이 계신 곳으로 가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임진왜란 때는 이로움이 소나무에 있고(이재송송利在宋宋의 송宋은 송松의 이두식 표현) 그림 호랑이는 이름을 돌아보건대 송아지독(犢)이요. 음(音)인 즉 송하지(松下止)로서 소나무 아래에 머물러야 살 수 있다는 말이다. 이재가가(利在哥哥)의 哥(가)는 家(가)의 이두식 표현. 이로움이 집에 있으니 그림 개는 집의 처마를 돌아보니 이름인 즉 강아지(견犬)로서 병자호란 때는 피란처가 강아지(견犬)를 상징하는 가하지(家下止) 즉 집에 머물러야 살 수 있다는 말이다. 이재전전(利在全全)의 전(全)은 전(田)의 이두식 표현으로 이로움이 전전(田田)에 있으며 그림 소가 시냇가를 돌아보니 이름은 빈우(牝牛=암소)를 상징하고 음(音)인 즉 도하지(道下止)로서 도(道=정도령의 십승지도) 아래에 머물러야 살 수 있다는 말이다.

似草非草二才前後 사초비초이재전후
浮木節木從木在生 부목절목종목재생
似野非野兩上左右 사야비야양상좌우
浮土溫土從土在生 부토온토종토재생
似人非人人玉非玉 사인비인인옥비옥
浮金冷金從金從金在生부금냉금종금종금재생
死運人口有土虎龍相鬪사운인구유토호룡상투
八年間方夫觀 팔년간방부관
死運重山不利狗鼠鬪食一夜間由倒觀
사운중산불리구서투식일야간유도관
死運六角八人牛兎相爭十日間立十觀
사운육각팔인우토상쟁십일간립십관
宋字十八加公木公間生不如松人澤
송자십팔가공목공간생불여송인택
深谷地名 심곡지명
可字豕着冠 가자시착관
火口間生不如臥眠臥身화구간생불여와면와신
巡簷簷名 순첨첨명
全字十口入 전자십구입
兩弓間生不如修道正己양궁간생불여수도정기
田名 三數之理弓乙田一理貫通
전명 삼수지리궁을전일리관통
三妙之十勝 삼묘지십승

임진왜란 때는 풀과 비슷하나 풀이 아닌 목(木)인데(재才를 앞뒤로 붙이면 목木이 된다.) 부목(浮木=陽木)이든 절목(節木=陰木)이든 소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야 살 수 있느니라. 병자호란 때는 들인 것 같으나 들이 아닌 양쪽 좌우가 들떠 있는 흙이요 따뜻한 흙 즉 흙벽과 온돌이 있는 온돌방 안에 있으면 살아날 수 있느니라. 말세에는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니요 옥(玉)과 같은 사람이나 옥이 아닌 왕(王=玉無瑕)이요. 부금(浮金=陽金)과 냉금(冷金=陰金)이 하나가 된 금운(金運)의 정도령 진사성인을 따라야 살아날 수 있느니라. 임진왜란 때의 죽을 운은 집안에 앉아 있는 것이니라. 인구유토(人口有土)는 좌(坐)자요 호룡상투(虎龍相鬪)는 임진왜란을 의미한다. 방부(方夫)는 경(庚)자의 파자. 경인(庚寅=虎) 신묘 임진(壬辰=龍)부터 정유재란까지 8년간의 왜란이 있었다. 병자호란 때의 죽을 운은 집 밖으로 나가는(중산重山=出) 것이니라. 개와 쥐가 밥을 두고 싸우니 하루 밤 사이에 끝이 나느니라. 일야간유도관(一夜間由倒觀) 유도(由倒)는 유(由)를 뒤집는다는 뜻이니 갑(甲)이요 개는 술(戌)이니 갑술(甲戌)이요 쥐는 서(鼠=지지의 子)이니 갑술을해(乙亥)를 지나 병자호란을 말한다. 하루 밤 사이만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천재(天災)인 눈의 피해를 면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마지막 말세의 죽을 운은 육각팔인(六角八人)에 있느니라. 육각(六角)은 천(天)이요 팔인(八人) 화(火)이니 곧 천화(天火)를 말하며(살아자殺我者는 소두무족小頭無足을 뜻한다.) 소(우牛=丑축)와 토끼(토兎=卯묘)가 서로 싸우게 되나 10일 만에 끝이 나느니라. 립(立)과 십(十)자를 합해서 보라. 즉 천간(天干) 신(辛)자의 파자. 신축(辛丑) 임인(壬寅)을 지나서 계묘(癸卯)에 '하늘에서 천화(天火)가 내려온다.'는 뜻이다.(소두무족비화락지小頭無足飛火落地) 임진왜란 때 살려면; 송(宋)은 송(松=十八加公십팔가공)인데 소나무 사이(소나무 숲)에서 살아나기를 꾀하는 것은 소나무 송(松)자의 이름을 가진 사람(松人)을 택함만 못하느니라. 즉 임진왜란 때 조선을 지원하러온 명나라 이여송(李如松) 장군을 의미한다. 송(松) 즉 소나무는 깊은 산골짜기의 땅에서 자라는 나무를 이르느니라. 병자호란 때 살려면; 가(可)는 가(家=豕着冠시착관)이며 전란(戰亂)이 있을 때 피란 가는 사람들에 끼어 살려고 하는 것은 집안(온돌방)에 누워서 잠자는 것만 못하느니라. 가(家)는 사방을 둘러 처마(簷첨)가 달려있는 것을 이르느니라. 마지막 말세에 살려면; 온전할 전(全)자는 곧 밭 전(田)을 말함이니 입 구(口) 속에 열 십(十)자가 들어있는 글자이니라. 양궁(兩弓)사이(間간) 즉 십(十)자인데 아무 십자 사이에서나 살려고 하는 것은 수도(修道)해서 자기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만 못하느니라. 흑십자(黑十字)가 아닌 전(田)자의 이치로 오신 백십자(白十字)의 주인공인 십승지인(十勝之人)이 있는 곳에 들어가야 살 수 있으나 수도(修道)를 해서 자기 몸가짐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뜻이다. 전(田)이란 삼수(三數)의 이치를 이르나니 궁을전(弓乙田)은 하나의 이치로 관통하느니라. 삼수(三數)의 오묘한 이치 속에서 완성의 십승(十勝) 정도령이 나오게 되느니라.(삼인동행, 삼위일체) *

박명하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종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몸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